

가정용 유류 배달이

李 洪 煥
 〈호남정유 수송부 차장〉

중동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유가의 40불선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때맞춰 나라안에서는 유가인상 불가피說이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일고 있다. 게다가 동장군은 서서히 유령의 그림자처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으니 금년 겨울을 넘길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진짜 서민들에겐 춥고 배고픈 회색의 겨울이 될 것만 같다. 과거 두차례나 석유위기의 엄청난 악몽을 겪고도 그 악몽이 언제 있었더냐는 듯 잊어 버린 지가 까맣다.

당국의 석탄합리화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강원도 황지, 사북, 고한, 장성일대를 돌아 보노라면 온통 30~40여호나 되는 마을 전체가 유령의 집처럼 비어 있다. 그야말로 한낮에도 다니기가 섬찟할 정도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람결에 빈집의 대문이 덜컹덜컹거리는 소리뿐이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말라 비틀어진 도둑 고양이때 뿐이다. 모두들 어딜 갔을까?.....

그나마도 오도가도 못하고 남아 있는 몇몇분들께 물어보면 하나같이 저울로 부산으로 살길을 찾아떠났다는 대답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도권 인구과밀방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제한정비는 공염불이란 말인가 하는 자문이 생긴다.

석탄합리화정책은 또 그렇고 당국에선 그동안 물가 두들겨 잡는답시고 수 차례 유가만 낮춰놓고 보니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이 땅에 기름 한 되 값이 커피 반잔 값도 안되는

어렵다

실정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 뿐이다. 휘발유 값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못사는게 아니라 보험료가 오하려 자동차를 갖는데 걸림돌이 되는 판국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름값 싼것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격이 되었다고나 할까... 보라! 길 거리에서 자동차가 정체 상태로 태우는 기름이 얼마나 많이다. 싼 기름 값 덕분에 너도 나도 자동차갖기 운동이 벌어졌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어찌되었든 싼 기름값 영향으로 가정집의 연료가 거의 보일러 난방으로 변했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새로 짓는 집은 어김없이 기름 보일러난방으로 꾸며져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주택문제 해결(?)에 보탬이 된답시고 건축법 마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다 보니 기존의 집을 헐고 들어서는 것은 어김없이 다세대 아니면 연립주택이다. 이들 집들의 기름 보일러용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다세대 주택에 세대별로 연료탱크를 설치하려니 장소가 없다.

그러다 보니 그 다세대에 기름탱크가 몇개씩이나 된단다.

연료탱크가 후미진 2, 3층의 베란다에는 물론 심지어는 어떤 집은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다는게 유조차 기사들의 말이다. 참으로 위험

천만이 아닐 수 없다. 주택에 위험성 인화물질이 구석 구석이 얹혀 있는 꼴이다.

그래서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용 유류주문이 쇠도되고 있다. 그러나 유조차 기사들은 가정용 기름배달을 무척 꺼린다. 이유는 주택가 골목을 기름을 적재한 유조차가 헤집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사들의 한결 같은 뉘이다. 왜냐하면 한 낮에도 주택가 골목에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 승용차들이 늘어서 있어 유조차 진입에 큰 장애물이란다. 그래서 기름주문을 받고 나갔던 유조차들이 그냥 돌아오기가 일쑤다.

때문에 유조차의 가동 효율이 떨어지고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높아만 간다.

정유사를 비아냥 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한 해전만 해도 유조차가 곳에 따라 하루에 시내에서 5~6회 뛰던 것을 지금 2~3회 배달이 바쁜 하루란다.

가정용 유류 배달이 정말 어렵다.♣

